

大學教授의 存在理由

李 仁 浩
(서울大 西洋史學科)

大學教授라는 직업을 가진 것이 이처럼 汚辱스러운 수가 없다. 교수들이 비난의 대상이 된 직접적 계기는 藝·體能系 신입생들의 不正入學 사례의 폭로에 있었지만, 사실 대학 교수의 存在樣式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소지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대학에 몸담아 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알고 있다. 정치 권력의 횡포 앞에서 대학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최소한의 학원 자율조차 지키지 못하고 포기해 버린 이래 한국의 대학은 파행에 파행을 거듭해 왔으며, 그것이 바로 부정 입학이라는 사례를 통해 노출되기 시작한 것뿐이다.

국회의원들의 항응성 의유가 지금 문제되고 있지만, 사실 대학 운영자들에게 ‘항응’이란 정례화된 ‘업무’였으며 심지어는 소액의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 행정 담당자들에게 얼마를 때 주어야 하는 것도 관례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최소 얼마라도 돈을 써야 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 되었고, 취업 과정에서 비리는 보다 은밀하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람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자행되어 왔다. 대학 사회의 비리는 문교 행정의 부패라고 하는 보다 굵고 깊은 뿌리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부터 바로 잡아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

이러한 속에서 대학들이, 아니 그 주체가 되어야 하는 교수들이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선 필요한 것은 지금의 대학 현실이 더는 묵인할 수 없는 정도의 도덕적 파탄에 빠져 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대학의 기강이 이처럼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물론 대학을 정치 도구화하고자 했던 政治權力에 있었음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정치적 압력이 아무리 대단했다 해도 대학이 대학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위신마저 상실한 데 대한 책임은 교수들, 특히 각종의 보직을 맡아 온 교수들에게 있었음을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자율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교수들은 단합된 의지를 보인 적이 거의 없었으며, 쉽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대학의

위신과 교수의 자존심은 이제 돈으로 자기 이름을 사고 파는 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지경에 이른 것이다. 총칼 앞에서 목숨을 내걸고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교수 집단이란 본래 그러한 志士氣節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아무리 군사 독재가 관치던 '70년대, '80년대라 할지라도 최소한 양심을 팔지 않기 위해 보직에서 물러날 수 있는 자유쯤은 있었으며 학사나 학생 지도에 관계해서 대륙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식과 양심의 선을 지키 나가야 함을 고집할 수 있는 정치적 여백은 항상 남아 있었다. 그러한 最小限의 常識線마저 무너지게 된 데 대한 책임은 대학 교수들 자신이 저야지 어느 누구에게도 전가시킬 수는 없다.

이러한 통렬한 반성이 있을 때 비로소 大學이, 教授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한 겸허한 제안이라도 나올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大學教授라는 職業이 어떤 직업인가, 왜 우리는 그러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인가 등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된 理解의 기반을 다시 구축하고 그러한 理解에 기초하여 교수 공동체 구성원을 양성하고 충원하며 필요한 경우 교체해 나가는 것이다.

大學教授도 교수이기에 앞서 인간이고 모든 다른 人들이나 마찬가지로 직업을 통해 생계 수단을 확보해 갈 필요를 느낀다. 그러나 교수직이 다른 직업과 다르고 또 한 달라야 하는 것은 어느 專攻 分野를 막론하고 교수의 직업적 존재 이유가 眞善美의 추구에 있기 때문이고, 진리나 아름다움이나 착함을 추구하는 일에만 몰두해도 최소한의 生計保障은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수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인생의 勝敗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것은 물질적 번영이 아니고 자유인으로서의 자기 영역을 얼마나 훌륭하게 지켜 나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창조적 활동을 펼쳐 나가는가 하는 것이다. 교수라는 사람이 거짓된 체제 속에 안주하기를 강요당하면서 인간으로서의 內的 自尊心을 상실하고 學問的 良心을 버리게 될 때, 그의 발달된 知能과 技藝는 타락을 정당화하는 궤변의 무기로 둔갑하거나 아니면 부정 입학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적나라하게 致富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마련이다.

불행히도 우리의 대학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정치적 도구화의 압력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대학 본연의 모습을 지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다. 악에 가담하지 않고 피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웠던 것이 그간의 우리의 처지였다. 그러나 잘못된 것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회피만 해 갈 때, 사회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대학 사회의 완전한 도덕적 파탄이라는 형태로 이미 노출되고 있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야 정말 대학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적당히 눈감아 주지를 말고 是非非非를 가리며 싸울 때가 온 것 같다. 지금까지의 경위가 어찌되었건 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바로 잡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우리들 개개인 속에 도사리고 있는 利己主義와 용렬함을 추방하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늦추지 말아야 되겠다.

교수라는 직업을 택한 본래 이유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內的 自尊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自由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그러한 자유를 우리가 지켜 내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이다. *